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373

JCCT 2023-1-44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Male Nurses' Self-Image and Influencing Factors

박선아*, 전재희**, 염순교***

Sunah Park*, Jaehee Jeon**, Soongyo Yeou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분석대상 논문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중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12개의 논문이다. 우리는 문헌고찰을 통해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로 1) 그냥 간호사, 2) 기회의 직업, 3) 직업 정체성 모호, 4) 제한된 역할의 4개 주제를 도출되었다.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1) 간호역량, 2) 사회적 성 고정관념, 3) 남자간호사 롤 모델 부재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추후 남자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인식 제고를 위해 남자간호사의 대중적 이미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남자, 간호사, 자기 이미지, 통합적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scribe male nursing image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mage. We performed an integrative review for a total of 12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9 and 2019. We derived four themes of male nurses' self-image: 1) just a nurse, 2) job opportunity, 3) identity ambiguity, and 4) role limitati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nurses' self-image were derived from three themes, specifically 1) nursing competency, 2) social gender stereotypes, and 3) absence of male nurse role models. We suggested the need to develop various strategies to enhance male nurses' self-image. Further studies should investigate the public image of male nurses to improve their social role and the perception of them.

Key words : Man, Nurse, Self-image,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서,

자신 혹은 자신 이외의 여건들에 의해 형성된다. 최근 COVID-19에 감염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1]. 간호사이미지는 이런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이 논문은 26th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의 일부가 포스터 발표됨.)

Received: December 27,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yeoumsg@seoil.ac.k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한시적 상황에 의해 기인한 자신 이외의 여건으로 영향 받기도 하고, 직업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면서 자기 스스로가 형상화하기도 한다. 감염자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대중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안위보다는 환자를 우선으로 간호하는 모습이 공익에 부합하며 직업적 소명의식이 투철하다는 의미로 전달받기 때문이다.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등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2, 3]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의 전문성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련성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며, 간호사를 예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전문직 자아 개념 등도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3].

매년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자가 2017년 10.96%에서 2022년 15.6%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남자간호사가 증가하는 인원이 5년간 1,514명(2017년 2,134명, 2022년 3,648년)이나 되며[4] 그 추세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간호사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간호사이미지가 향상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호사이미지는 여성성에 기반해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소수집단인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경험한다[5]. 이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역할갈등 경험과 낮은 직무만족도로 이어지면서 이직 의도를 증가시킨다.

의료기관 근무간호사 중 남자는 2017년 4.24% 정도에 불과하며, 여기에 남녀 포함 6개월 이내 이직의향이 있는 간호사가 30.97%를 나타내고 있다[4, 6]. 남자간호사의 증가추세와 높은 이직의향은 곧 간호사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직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자간호사와 관련해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간호사의 상이점, 남자간호사의 경험 및 역할기대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5, 7, 8].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성역할정체감 인식유형, 간호학과 적응과정 유형 등을 개인의 느낌, 신념, 가치나 이미지 등의 주관성으로 분석하여

개인 내에서의 의미의 차이를 속성화한 연구도 진행되어 있다[9, 10]. 또한,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장애요인들을 고찰하여 이들의 교육장벽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남자 간호 대학생이나 간호사들의 간호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렇게 산재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남자간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이미지와 이와 관련되는 영향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자간호사들의 자기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으로 선회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자간호사의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는 이들의 임상역량과 재직의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간호의 직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남자간호사는 간호직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2)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합성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Whitemore와 Knaff[12]이 제시한 통합적 고찰의 5가지 단계인 (1) 문제인식 단계 (2) 문헌검색 및 선정 단계 (3) 자료의 평가 단계 (4) 자료 분석의 단계 (5) 자료 통합을 통한 결론 도출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1) 문헌검색 및 선정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고찰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로 출판된 논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영어 논문은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PubMed 및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논문은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와 Research International Sharing Service (RISS)를 통해 2009년에서 2019년 12월까지 출판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남자’, ‘남학생’, ‘간호사’, ‘간호’, ‘이미지’, ‘인식’, ‘자기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남자 간호대학생 또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로 제한하였으며, 사회적 이미지나 대중 이미지에 대한 문헌은 제외하였으며, 문헌 연구, 도구 개발 연구 및 학술대회 포스터 및 구두발표 연구도 제외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이었으며, 주요 검색어를 통해 확인된 논문은 CINAHL 194, PubMed 2,763, Web of Science 680, KISS 6 및 RISS 35편이었다. 이후 연구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선별하고 중복논문을 제거한 총 36편의 논문을 확보하여 논문의 전문을 검토하였다. 총 36편의 논문 중 26편의 논문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으며(예: 대중 이미지에 대한 연구, 여자 간호사 이미지, 문헌연구 등),

나머지 1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이후 10편 연구의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여 추가 2편의 연구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총 12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2) 자료의 질 평가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논문은 MMAT (Mixed Methods Appraisal Tool)[13]를 이용하여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다. 이 도구는 통합적 문헌고찰과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론(예: 질적 연구, 무작위 실험연구, 비무작위 연구, 양적 기술 연구 및 혼합 방법 연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2명의 저자가 추출된 모든 연구의 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회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합의에 도달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Whitemore와 Knaf[12]에서 제시한 5단계, 즉 자료 축소, 자료 디스플레이, 자료 비교, 결론 도출 및 검증 단계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합성하였다. 자료 축소 단계에서 자료의 반복적인 비교와 해석을 용이하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수, 대상자 특성, 연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후 연구 질문에 따라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추출하여 숫자와 텍스트로 나열하였다. 추출된 자료는 비교와 대조를 통해 유사한 의미를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주요 자료들과 적절한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12편 논문 요약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논문이 수행된 국가는 국내 4편, 이란 2편, 호주 2편, 이집트(요르단 공동연구) 2편, 대만 1편, 홍콩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 5편, 질적 연구 4편, Q-방법론 2편, 혼합연구 1편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이었으며, 남자 간호대학생 대상 6편, 남자간호사와 남자 간호대학생 모두를 포함한 연구 1편이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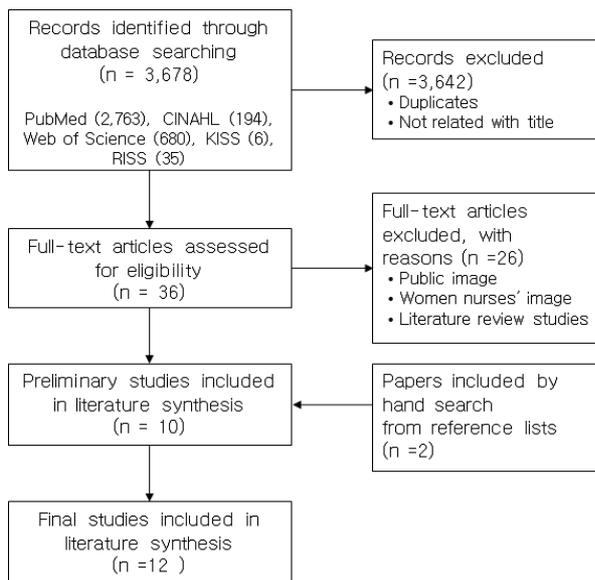


그림 1. 문헌선정 PRISMA 흐름도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of the study selection

표 1. 분석논문 요약

Table 1. Summary of the Reviewed Papers

저자 (연도)	국가	연구설계	대상자
Abdel El-Halem et al (2011)	이집트	서술적 조사연구	남자 간호대학생
Youn (2012)	한국	서술적 조사연구	남자 간호대학생
Zamanzadeh et al (2013)	이란	질적연구	남자간호사
Valizadeh et al (2014)	이란	질적연구	남자간호사
Zenobia et al (2014)	홍콩	질적연구	남자 간호대학생 남자 간호 대학원생
Stanley et al (2014)	호주	서술적 조사연구	남자간호사 여자간호사
AF Ibrahim et al (2015)	이집트 요르단	서술적 비교연구	남자 간호대학생
Song et al (2015)	한국	Q-방법론	남자 간호대학생
Kim and Shim (2016)	한국	Q-방법론	남자간호사
Shin et al (2016)	한국	혼합연구	남자간호사
Juliff et al (2016)	호주	질적연구	남자간호사
Hung et al (2019)	대만	서술적 조사연구	남자 간호대학생

1. 남자간호사에 대한 자기 이미지

남자간호사 관련 논문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자기 이미지는 4개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1) 나는 그저 간호사이다, 2) 기회의 직업, 3) 직업정체성 모호, 4) 제한된 역할이었다.

1) 나는 그냥 간호사이다

‘나는 그냥 간호사이다’ 주제는 남자간호사들이 간호 직업에 대해 자부심이 높은 양성평등형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14-16], 남자간호사도 여자 간호사만큼 친절하고 섬세할 수 있고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17-19]. 남자간호사가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 성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나 교육의 차이라고 인식하였다[18]. 특히 이란, 이집트 등과 같은 중동문화권의 국가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 환자 간호를 위해 남자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직업을 여성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17, 20, 21]. 이들은 간호직업은

성(gender)을 구분하지 않는 양성평등 직업(gender-neutral profession)이며[17, 20, 22], 따라서 간호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불필요하고, 자신들을 ‘남자간호사’가 아닌 ‘그냥 간호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22].

2) 기회의 직업

‘기회의 직업’ 주제는 남자간호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직업은 여전히 남자에게 희소한 직업이며[20, 23], 이러한 희소성이 오히려 직업적 기회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17, 20, 24]. 또한 남자간호사는 여자 간호사보다 조직 내에서 상호존중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 간호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18-20], 간호의 발전을 위해 남자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18]. 또한, 책임감, 자신감, 원만한 인간관계 등과 같은 남자의 특성이 남자간호사의 입지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16, 18].

3) 직업정체성 모호

‘직업 정체성 모호’ 주제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여성의 직업군으로 인식되어 있어, 남자간호사로서 간호역할과 직업정체성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15, 18, 25]. 이들은 이러한 간호사의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자간호사의 정체성이나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15, 25]. 이러한 인식은 특히 대학생 시기에 자신이 여성의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20, 21, 25], 간호학 전공자인 것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간호직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었으나[17], 졸업 후 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한된 역할

‘제한된 역할’ 주제는 남자간호사와 여자간호사 간의 생리학적 성의 차이(gender difference)가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 세심함, 의사소통술, 환자간호 등에서 여자간호사보다 부족하고 덜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25]. 또한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 환자, 특히 여자 청소년 환자에게 배정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16, 22], 주로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간호사 역할

에서 한계점을 인식하였다[18-19, 25]. 특히, 남자 간호사는 여성 환자 간호 시 남성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성적 접촉 의심을 염려하며, 친밀한 접촉(intimate touch)을 제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22, 25].

2.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 영향요인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1) 간호역량, 2) 사회적 성 고정관념, 3) 남자간호사 롤 모델 부재이다.

1) 간호역량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는 대학의 간호교육과정과 임상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21, 25]. 특히 간호사로서 침상 옆 환자 간호를 수행하면서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간호전문 분야로 역량개발과 임상경험을 통해 향상된 간호역량이 간호사 자기 이미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성 고정관념

간호사에 대한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22, 24].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간호직을 본질적인 여성의 직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18, 24]과 남자간호사를 동성애자나 여성성이 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오해 등을 의미한다[22]. 남자간호사는 남자 의사가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것처럼, 남자간호사도 산부인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하였다[18].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여성친화 젠더 장벽이 자신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 남자간호사 롤 모델 부재

남자간호사에 대한 정보부족과 롤 모델의 부재가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16, 17, 24]. 남자 고등학생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정보를 학교를 통한 진로안내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로 학교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17], 남자간호사의 실제적, 구체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롤

모델이 없다고 하였다[16, 24]. 이를 위해 학교차원에서 진로안내, 대학방문 및 견학프로그램 등이 남자 고등학생의 간호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22].

IV. 논 의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자기 이미지는 4개 주제로 '나는 그냥 간호사이다.', '기회의 직업', '직업정체성 모호', '제한된 역할'이었다.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자기 이미지는 첫째 '나는 그냥 간호사이다'로 간호사는 여성의 전유 직업이 아닌 성의 구분이 없는 직업 자체이며, 친절하고 섬세한 간호사의 특성은 젠더의 차이가 아닌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 차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대중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Kalisch와 Kalisch [26]가 시대별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50년대에서 1919년까지 자비의 천사, 1920년대에는 여비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는 여주인공, 1946년부터 1965년에는 어머니, 1966년부터 1982년까지는 성적 대상, 그리고 1983년 이후부터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즉, 수천 년간 간호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근간은 여성성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자 간호 대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도 2009년 이후로 남자간호사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27]. 전통적으로 여성이 대부분이던 간호직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미래 간호의 필수 조건 중 일부인 다양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변화일 것이다[28]. 하지만 간호사로부터 직접 간호를 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여전히 여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간호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로 고려하고 있다[29].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진 간호의 공공 이미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며, 남자가 간호사를 한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낮은 수준의 급여에 만족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응답결과도[30]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인 간호사의 이미지에 의해 간호계의 소수자 집단인 남자 간호학생들은 학습과 임상실습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 과정에서부터 남자간호사를 젠더의 고정관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며, 남자간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남자간호사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두 번째 이미지는 ‘기회의 직업’이다. 남자에게 희소한 간호사 직업은 오히려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직업적 기회가 되며 간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남자간호사는 수세기 동안 돌봄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평가된다[31].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는 조직 내에서 상호 존중하는 원만한 인간관계, 책임감, 자신감 등의 장점으로 간호직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의 성향 차이로 고질감과 이질감을 경험하며[5], 자신보다 어린 선배 여자간호사에게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이는 남자간호사 스스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간호사 스스로 기회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고무적이다. 따라서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기회의 직업을 위해 임상 현장에서는 남자간호사의 배치와 역할 확대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세 번째 이미지는 ‘직업정체성 모호’이다. 간호직군에 남자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이나 환자, 보호자가 인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성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33, 34]과 연관이 있다. Ha와 Yoo[35]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은 주관적 요인, 제도적 요인, 매체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간호사는 간호 대학생 시기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해 여성의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네 번째 이미지는 ‘제한된 역할’이다. 이는 젠더 차이로 인해 여성 환자의 간호에서 배제되는 등의 제한된 역할이 주요 포인트이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를 받는 상황을 불편해하며, 특히 여성 환자들에 대한 간호 시 남자간호사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흔하다[33, 36]. 이에, 특수부서나 클리닉에서 의사 업무 보조

인력의 역할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즉, 남자간호사는 스스로 간호직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단지 전문적인 직업으로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한계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자들은 남성은 간호에서 힘의 원천적 측면으로, 즉 수술실, 중환자실 등 장시간 근무와 힘이 필요한 경우 남자간호사는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37]. 하지만 그동안 남자간호사의 이점을 다루는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37], 이에 남자간호사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과 영역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견고한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3개 주제로 ‘간호역량’,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남자간호사 롤 모델 부재’였다. 첫 번째 영향요인은 ‘간호역량’이다. 즉 남자간호사가 임상에서 간호역량을 발휘하고 스스로 향상되는 과정 속에서 간호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 전문직관 이었고[38], 간호사의 일관되지 않은 이미지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전문성 부족’이었다는 연구결과[39]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대중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도 전문적인 간호의 모습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MZ세대 대학생(간호대, 비간호대)의 간호사 이미지는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1]. 이는 매스컴을 통한 간호사들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남자간호대학생과 남자간호사가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호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두 번째 영향요인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다. 여자간호사가 남자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남자간호사가 여자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남자간호사가 아닌 그냥 간호사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상 등에 대한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은 짧은 시간에 쉽게 변화할 수 없기는 하나 이미 간호 대학생을 희망하거나 입학하는 남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27] 점차 변화가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전문적인 간호 외에 환자에게 반응하고 예의 바르며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34]. 따라서 남자간호사는 간호사로서 술기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환자를 응대해야 할 것이다[34].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채용 공고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확인하였는데 여자 참여자는 남자 참여자보다 남자가 간호사에 적합한 직업이라고 판단한 반면, 남성은 반대로 평가하였다[40]. 또한 터키의 남녀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학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는데 여학생은 절반 정도가 간호사로서 남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남학생은 간호사는 여전히 여성 우위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졸업 후 임상보다는 보건의료 분야의 행정직을 주로 희망한다고 하였다[41]. 즉 남자간호사에 대한 저항은 여자보다는 오히려 남자 스스로에게서 더 비롯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40].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넘어서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남자 간호 대학생 때부터 스스로의 성에 대한 편견에 벗어나는 교육이 필요하다.

남자간호사 이미지 형성의 마지막 영향요인은 ‘남자간호사 롤 모델 부재’이다. 실제로 간호단체나 학계의 회장과 주요 임원들은 거의 여자간호사가 하고 있고 매스컴에서 간간히 소개되는 간호리더나 선형의 주인공은 여자간호사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남자간호사는 현장의 다양성을 수용하거나 발전시키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37], 남자간호사의 수적 증가도 최근 10여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7]. 따라서 대학의 교육에서 남자 간호 대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남자간호사와 멘토·멘티 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홍보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협회나 의료기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고 합성하여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남자간호사가 인식한 자기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긍정적인 측면은 남자간호사가 자기 자신을 젠더화된 이미지보다 그냥 간호사로서 간호사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기회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여성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남자간호사로서 정체성의 혼돈과 선천적인 성의 차이로 인한 역할 제한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간호역량, 사회적 고정관념, 남자간호사 롤 모델 부재가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 향상을 위해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여 남자간호사의 자기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남자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H. Lee, “MZ Generation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Image of Nurse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3, No. 5, pp. 1985-1998, 2022. <http://dx.doi.org/10.22143/HSS21.13.5.138>
- [2] E.J. Heo, E.J. Kim, M.N. Park, and J.Y. Lee,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the Nursing Image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1, No. 5, pp. 2257-2271, 2020. <http://dx.doi.org/10.22143/HSS21.11.5.162>
- [3] J.Y. Lee, “A Study on Nurse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3 pp. 284-295, 2017. <http://dx.doi.org/10.5762/KAIS.2017.18.3.284>
- [4] Young Doctor, “Male Nurse,” [cited 2022 February 16]. Available fro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809>
- [5] K.A. Ahn, S.J. Min, and S.K. Hwang,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1, No. 6, pp. 652-665, 2009.
- [6] Y.S. Shin, "A Survey o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ed 2020 February 5].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2714.
- [7] H.S. Kim, Hyu, and H.J. Yun, "Differences between Male Nurses and Female Nurses Recognized by Female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pp. 147-155, 2019. <https://doi.org/10.17703/JCCT.2019.5.2.147>
- [8] I.O. Sim, and O.Y. Bae, "Analysis of Recognition Type of Role Expectation Experienced by Male Nurses," *Journal of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 38, pp. 43-60, 2017.
- [9] M.A. Kim, S.H. Ko, and U.N. Park,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23-233, 2014.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223>
- [10] E.J. Lee, "Types of Mal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their Academic Depar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1, pp. 108-117, 2017.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108>
- [11] M. Kim, H.H. Cho, and G.S. Jeon,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Vol. 22, No. 3, pp. 109-111, 2014.
- [12] R. Whittmore and K. Knafl, "The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2, No. 5, pp. 546-553, 200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5.03621.x>
- [13] Q.N. Hong et al.,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MMAT)," version 2018. Registration of Copyright (#1148552),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dustry Canada*.
- [14] C.A. Hung et al., "The Effect of Gender-friendliness Barriers on Perceived Image in Nursing and Caring Behavior among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9, No. 9-10, pp. 1465-1472, 2019. <https://doi.org/10.1111/jocn.14693>
- [15] A.F. Ibrahim, D.T. Akel, and H.W.M. Alzghoul, "Image of Nursing Profession as Perceived by Egyptian and Jordanian Undergraduate Male Nursing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Vol. 6, No. 14, pp. 24-36, 2015.
- [16] I.J. Kim and H.W. Shim, "Subjectivity on the Job Imag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No. 32, pp. 69-87, 2016.
- [17] G.E. Abdel El-Halem, Z.I. El Hawashy, and E. E. Taha, "Undergraduate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Image of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American Science* Vol. 7, No. 3, pp. 614-623, 2011.
- [18] M.S. Song, Y. Park, and H. Wee, "Male Nurses' Images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cience*, No. 38, pp. 37-67, 2015.
- [19] J.H. Shin, M.H. Seo, and M.I. Lee, "Nursing Jobs and Gender in our Age of Convergence: Research on Male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287-297, 2016. <https://doi.org/10.14400/JDC.2016.14.3.287>
- [20] L. Valizadeh, et al., "The Image of Nursing, as Perceived by Iranian Male Nurses," *Nursing & Health Sciences*, Vol. 16, No. 3, pp. 307-313, 2014. <https://doi.org/10.1111/nhs.12101>
- [21] V. Zamanzadeh et al., "Choosing and Remaining in Nursing: Iranian Male Nurses' Perspectives," *Contemporary Nurse*, Vol. 45, No. 2, pp. 220-227, 2013. <https://doi.org/10.5172/conu.2013.45.2.220>
- [22] D. Juliff, K. Russell, and C. Bulsara, "Male or Nurse What Comes First? Challenges Men Face on their Journey to Nurse Registration,"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34, No. 2, pp. 45-52, 2016.
- [23] M.S. Youn, "The Study for Nurse Image and Job Recognition about Male Nurse of Male Students in Nursing," *Holistic Health Science*, Vol. 2, No. 2, pp. 95-106, 2012.
- [24] D. Stanley et al., "The Male of the Species: A Profile of Men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72, No. 5, pp. 1155-1168, May 2016. <https://doi.org/10.1111/jan.12905>
- [25] Z.C. Chan, K.K. Lo, K.C. Tse, and W.W. Wong, "Self-image of Male Nursing Students in Hong Kong: Multi-qualitative Approache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Vol. 8, No. 1, pp. 26-33, 2014. <https://doi.org/10.1177/1557988313488929>
- [26] B.J. Kalisch and P.A. Kalisch, "Anatomy of the Image of the Nurse: Dissonant and Ideal Models,"

- American Nurses Association Publications*, G-161, pp. 3–23, 1983.
- [27] Korea Nurses Association, “Male Nursing Students 10,000 People Ages,” *The Korean Nurse*, Vol. 52, No 2, pp. 17–18, 2015.
- [28] E.J. Sullivan, “Men in nursing: The Importance of Gender Divers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16, No. 5, pp. 253–254, 2000. <https://doi.org/10.1053/jpnu.2000.9455>
- [29] Y.H. Yom, K.H. Kim, H. Son, J.H. Jeon, J.M. Lee, and M.A. Kim, “Analysis of the Image and Likability of the Nurs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21, No. 2, pp. 169 - 179, 2015. <https://doi.org/10.22650/JKCNr.2015.21.2.169>
- [30] A. Squires, M.T. Ojemeni, E. Olson, and M. Uchaniashvili, “Nursing’s Public Image in the Republic of Georgia: A Qualitative, Exploratory Study,” *Nursing Inquiry*, Vol. 26, No. 4, pp. e12295, 2019. <https://doi.org/10.1111/nin.12295>
- [31] B. Brown, P. Nolan, and P. Crawford, “Men in Nursing: Ambivalence in Care, Gender and Masculinity,” *International History of Nursing Journal*, Vol. 5, No. 3, pp. 4–13, 2000.
- [32] M. Kim, “An Exploratory Study of Masculinity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5, No. 2, pp. 37 - 46, 2009.
- [33] A. Stott,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e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27, No. 4, pp. 325–332, 2007. <https://doi.org/10.1016/j.nedt.2006.05.013>
- [34] S. Valiee, S.M. Nemati, and D. Valian, “Exploration of Service Recipients’ Image of a Perfect Nurse: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Applied Nursing Research*, Vol. 54, pp. 1512–1572, 2020. <https://doi.org/10.1016/j.apnr.2020.151272>
- [35] J.Y. Ha and M.H. Yoo, “Nurse Image and Image Determinants - Comparison of Nurse Aids and Nurse Aid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2, pp. 485–495, 2017. <https://doi.org/10.1016/10.35873/ajmahs.2017.7.2.046>
- [36] H.M. Son, M.H. Koh, C.M. Kim, J.H. Moon, and M.S. Yi,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3, No. 1. pp. 17, 2003.
- [37] S. Arif and S. Khokhar, “A Historical Glance: Challenges for Male Nurses,” *The Journal of the Pakistan Medical Association*, Vol. 67, No. 12, pp. 1889–1894, 2017.
- [38] S. Han, “Effecting Factors Nurse Imag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1, pp. 789–798, 2019.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1.071>
- [39] J.A. Godsey, D.M. Houghton, and T. Hayes, “Registered Nurse Perceptions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onsistent Brand Image of the Nursing Profession,” *Nursing Outlook*, Vol. 68, No. 6, pp. 808–821, 2020. <https://doi.org/10.1016/j.outlook.2020.06.005>
- [40] K.A. Clow, R. Ricciardelli, and W.J. Bartfay, “Are You Man Enough to be a Nurse? The Impact of Ambivalent Sexism and Role ml, Congruity on Perceptions of Men and Women in Nursing Advertisements,” *Sex Roles*, Vol. 72, No. 7, pp. 363–376, 2015. <https://doi.org/10.1007/s11199-014-0418-0>
- [41] A. Özdemir, N. Akansel, and G.C. Tunc, “Gender and Career: Female and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Male Nursing Role in Turkey,” *Health Science Journal*, Vol. 2, No. 3, pp. 153–161, 2008.